



관광과 여가로 국민행복을 이끈다

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선대위
잘사니즘 위원회
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

보도자료

2025년 5월 20일 배포

배포 즉시 보도

총 3쪽(붙임 1쪽 포함)

배포: 정란수(010-4631-6532)

문의처 : 공동위원장

나효우(010-5162-1414) / 민경석(010-9766-1111) / 정란수(010-4631-6532)

더불어민주당 잘사니즘 위원회 「관광여가행복위원회」 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를 위한 대표단 간담회 개최

- k-관광선진국, 관광과 여가로 국민행복을 이끈다 -

-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, 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
- 유동수 의원(계양갑) 잘사니즘 위원장, 민경석·정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, 전국 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대표단 등 참석
- 첫걸음·디지털 사업의 효율적 운영,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정책 지원 확대, 한국관광공사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심도 있는 정책 제안 논의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<진짜 대한민국>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(위원장: 유동수, 어기구) 산하 관광여가행복위원회(공동위원장: 나효우, 민경석, 정란수)는 5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'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'를 위한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잘사니즘 위원장과 민경석, 정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, 전국 관광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대표단 24명 중 10여 명이 함께 했다.

간담회는 '관광을 통한 상권 활성화'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,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.

참석자들은 ▲ 첫걸음사업·디지털사업의 제도 개선 ▲ 문화관광형시장 지원

강화 ▲ 한국관광공사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.

특히 첫걸음사업·디지털사업이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기 육성된 상권전문 인력(300여명)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,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현재 30개 시장당 2년간 8억원 지원에서 10년 전과 같이 3년간 20억원으로, 연간 30개 시장에서 60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

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진행 시 시도별 관광공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사업단별로 수립하고,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및 예산·행정지원을 통해 상권과 관광을 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.

유동수 잘사니즘 위원장은 "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경제의 근간"이라며 "오늘 제안된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민경석, 정란수 관광여가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"관광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"고 강조했다.

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잘사니즘 위원회 관광여가행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.

붙임 : 간담회 사진 1부. -끝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관광여가행복위원회 정책 및 언론배포담당 정란수(☎ 010-4631-65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관련 사진 >

